이런 농장도 있다
체란양계업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취재부)

체란양계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많은 농장이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업을 하는 가운데 대다수의 양계업자들은 타성적인 자세로 처해있고 있다.

긴 불황의 와중에서도 ‘일에 성공을 원하고 그 일에 먼저 사람을 가거나’라는 신념으로 양계업에 사랑을 갖고 일을 열심히 나가는 몇몇 농장을 찾아 그들 농장가들이 어떻게 불황을 이기고 현재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지를 취재하였다.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하는 자세로 양계업을 천적으로 살아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

체란양계업계의 불황이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79년말부터 시작되어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 80년말부터는 확폭되려고 추진해왔지만 82년에 왔시도 목선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료협회에서는 장기간 양계산업이 불안한 가운데 정부의 경우 커피 경영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생산량을 감감하기 위한 양계산업의 “간접적 발전을 위한 생산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를 서울대 농대 오봉국박사팀에 의뢰하여 연구보고서도 나왔다. 이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같이 지난 1년간(80.9.1~81.8.31) 대부분의 농가들이 (농장 생산성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생산량을 밀도는 적자경영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가 특히 기장을 잃는농가들이 떨어질 때 얼마나 양계경영이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

다만 이들 적자폭을 사료의상이나 경영방식을 계산하여 적절히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면 산란율이 75%가 넘는 농장이 없는가 하면 65% 이상이 있어 이들 농장의 소득면에서 보면 연간 수당 소득이 1,331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본격적 오봉국박사가 수시로 발표할 예정이며 그날을 참조하기 바라며 나만 본고에서는 실제 이들 농장의 농장과 중동정도의 농장과 찾아보았다.
(표 1) 산란율별 산란계 수당 년간소득 및 순수익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0%</td>
<td>230.90</td>
<td>-1,421.91</td>
<td></td>
<td></td>
<td></td>
</tr>
<tr>
<td>10%</td>
<td>459.91</td>
<td>-368.17</td>
<td></td>
<td></td>
<td></td>
</tr>
<tr>
<td>20%</td>
<td>471.55</td>
<td>-540.94</td>
<td></td>
<td></td>
<td></td>
</tr>
<tr>
<td>30%</td>
<td>1,100.15</td>
<td>-370.27</td>
<td></td>
<td></td>
<td></td>
</tr>
<tr>
<td>평균</td>
<td>440.53</td>
<td>-580.79</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자료: 생산성 제고방안 (KFA '82)

내 농장은 어떠한가?
양계업의 그것도 특이 채란양계를 하다보면 타성에 꽁이기 쉽게 된다.
비단 양계업 뿐만이 아니고 백일 뒤판이 되는 독감은 작업은 지루할 뿐이고 어느새 자기 모습으로 기계화 되어 버린다. 그저 기계적 으로 할 뿐이다.

우리가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배운 청포도 사상에서 이효석사는 변화없는 생활은 자살을 의미한다는 말이 있다.

많은 양계인들이 변화없는 생활에서의 탈피를 위하여, 탈피의 한 방법으로 규모가 조급 커지면 주인은 관리원에 모든 것을 맡겨 게 되고 관리원은 성냥나른 기계로 되기 쉽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은 임시기준 산란율이 75%를 넘는 농장의 65% 산란율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된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며 산란율이 내려가기 기다리는 농장이 있는데, 농장의 달인들은 사과의 품질 때문에 산란율에 차이가 있는 농장들이 있는가하면 농장의 관리상태 때문 에 산란율이 오르고 내린다. 달인 사랑하는
양계장을 전과 함께 경영하는 양계장은 그간 2년에 걸친 불황을 겪지 않고 지금 현재 중추중에 있는 것을 보아 사료외상으로 오는 불황후 호경기를 예상하고 계사를 증축하는구나 하 고, 우선 불황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느냐는 인 사후에 사료외상같이 얼마나 되나 되어 보았 다.

이곳에 양계장을 만든지 4년 되는데 그간 사료의 외상으로 사본적은 한번도 없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양계장에 다른 수입원도 없고 그간 양계장은 친척으로 일하고 있다는 태담을 듣고는 놀라 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반적인 계사, 천정에는 벼리줄을 두 점에 넣어 단열하고 (스티로폴보단 훨씬 값싸 고 단열효과도 좋다는 설명이 있다) 양쪽 열은 개방한 평범한 계사였습니다.

계사는 되어도 계사안은 다르다.
장사를 걷어 신흥계사를 구경하였습니다. 일 견하여 평범한 계사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전장에 묻는 이도 없고 장사는 반벽반짝 윌이 나도록 되어 있다.

한가지가 보였던 다른 것을 걸작할 수 있다.
이제 무엇 잘못된 것이 없나를 찾으러고 예를 쓰게 되었다.

생계사는 물론 옥수사의 혼란 사로를 찾으려 노력했으나 실패였다. 기자의 방문을 사전에 들보 받은 것도 아니었고 케이지, 밀에 있는 계산이 그대로 대여 있고 옥수사에도 전력 이 투명하게 펼쳐지고 모이면 주의가 갈짐에 도 온건 사료는 없었다.

간단한 일 같지만 이러한 세심한 관리가 혹시 경영을 갖추어보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물론 청소는 군은 일을 낼게한다.
작년 말 미국남부의 한 산란계 농장을 그 농장 경영사가 기술부장의 안내로 찾아 볼 기회가 있었다.
무상제제에 모든 사양관리가 자동화 되어 있었는데 다른 시설은 제외되지 않았지만 물통이 특이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기술지도부의 담당은 간단하다. 지나치게 위생적이거나 겉보이지 않는 급수량을 생각하다 보면 많이 충분한 물을 먹을 수 없게 되어 계란의 주성분인 물 섭취량 부족 때문에 난중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아내고 자체 계열 회사의 농장 모두에 급수시설을 바꾸고 난중을 크게 개선하였다는 설명을 듣은적이 있다.

이 회사는 난분의 50여층의 계란 가공품을 생산하여 대부분 일본 중동에 수출하는 회사이므로 난중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을 보였다.

이번 실험이나 박찬복씨의 농장에서도 물통정소를 하지 않으니가 난중이 적어 지리라는 체험담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철저한 기록과 기록의 분석경고서 스스로 배운 지식이기 때문에 더욱 강인했다.

매일 매일 물통정소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반드시 더 좋은 것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물통정소가 헛들거나 헤택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수 인과 함께 사는 타들도 행복(?)하다고 하겠다.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한다

이렇게 예정을 갖고 철저한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이 농장이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염마를 맺고 있는지 이 농장에서 기록한 기록을 소개하고자 한다.

평균 80% 산란 90% 이상 3개월 산란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농장이 얼마나 월까?

이 섬지가 야외경적이 아닙니다 어느 특수농장의 시험장적인 것이라도 생각하는 농장이 있다면 그는 언제나 양해를 구함을 난동치 않음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움을 알아야 할 것이다.
표 2) 80%를 넘는 평균산란율

<table>
<thead>
<tr>
<th>농장별</th>
<th>생존율</th>
<th>H</th>
<th>D</th>
<th>H</th>
<th>H</th>
<th>산란지수</th>
<th>사료</th>
<th>평균 1일</th>
</tr>
</thead>
<tbody>
<tr>
<td>일반농장평균</td>
<td>84.4</td>
<td>73.4</td>
<td>67.3</td>
<td>245</td>
<td>169</td>
<td>123.2</td>
<td></td>
<td></td>
</tr>
<tr>
<td>A</td>
<td>92.4</td>
<td>80.7</td>
<td>77.6</td>
<td>262.4</td>
<td>156.6</td>
<td>126.4</td>
<td></td>
<td></td>
</tr>
<tr>
<td>B</td>
<td>85.7</td>
<td>80.2</td>
<td>75.9</td>
<td>267.8</td>
<td>157</td>
<td>125.9</td>
<td></td>
<td></td>
</tr>
<tr>
<td>C</td>
<td>73.3</td>
<td>68.5</td>
<td>62.1</td>
<td>224.5</td>
<td>176.7</td>
<td>121.0</td>
<td></td>
<td></td>
</tr>
</tbody>
</table>

(평균성적은 KFA 연구조사서에서)

우리는 혼히 C농장의 경우를 우리 나라 양
계장의 평균성적을 뿌게 되는데 생각하고 이
를 기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많은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 많은 양계장들이 C농장과 같은 성적을
인근도 느끼는 것이 없고 일반농장 평균성적
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생각해볼
것이 필요하다.

말 한마디가 20개의 암을 더 낳아준 것이 불
답을 했다고 내가 제사를 더 지울 수 있게 하
었고, 20개를 넣어가춘 양계장은 제사가 비
어갈 수밖에 없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드나?

산란율(HH)을 높이고 수익을 올리려고 모
do 할까 하면서도 오래 보았으나 A와 B농장의 경
우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한가지로는 A와 B농장의 경우 이들이 80%의 간편화와 270개의 재배를 생산하도록 잘 자녀진 프로그램으로 잘 옮겨져 주장되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끝이 끝까지 검토되어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달리는 발에도 체적을 하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모두가 끝나고 판단하고 쉼을 때로는 귀하에서 아니면 일손이 부족하다는 평소로 한번씩 안해도 별 큰 영향이 없겠지만, 요즘처럼 때때로 제어하기 쉽다.

많은 기술정보가 양각작가들에게 양각감 thụ나 각종 감정은 문서로 전달되거나 이런 것들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도록 내일로 미루고 또 확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생산성 제고방안이 그동안에도 여러번 제시되었으나 이제는 양각가 스스로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A와 B농장의 경우처럼 큰 목표를 향해 달리기는 농장과의 경쟁에서 뒤지면서도 이런 것들이 불편함의 탑단인 것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것을 양계선진국에서는 재배생산 체제로 생산 조직개편에 의해서 제일주체와 협동조합이 80%의 간편을 하도록 끊임없는 농가 지도와 감독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A와 B농장의 경쟁처럼 사료공장의 유용한 판매사인이 경기적으로 방어하여 기록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며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 사양판
리가 프로그램대로 잘 진행되는가를 확인 지도하는 경우는 매년 성장 발견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되었다.

이제라도 부화장 또는 사료공장이 상품을 판매하는데 끝나지 않고 고객들 농장의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그들의 생산성이 A와 B편 농장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지도확
인 한 말로, 계획의 생산비는 더욱 줄어지게 되고 소비자가 증가되어 내실을 기반한 발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장을 지도할 직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상품의 판매로 모두의 일이 끝나는 현실이 계속
되는데 생산성 제고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
제 양각작가들도 계절적인 지도와 서비스가 없
는 회사 제품의 보이지 않는 손해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양계장의 애로사항이 대부분 자금부족이라
고 느끼고 자금의 여유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의식구조에는 자연 자금 지원(사료외상), 무보한 환장, 파업생산, 불
황의 전설이 희말카길 따름이다.

요즘 절을 다니면 보면 수많은 건물에 큰 문재로
써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는 지났는데, 인플레이와 더불어 살아남아서는 지났습니다.